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남가주 한인 사랑 전했다

남가주 교계 주축으로 이루어진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이하 연합후원회)는 지난 13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해단식을 갖고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에 대한 최종 경과를 보고했다.

이번 모금은 이재민 돕기를 위해 남가주 각 교회와 사회 단체의 성금을 비롯해 엘에이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들이 마켓 및 상가에서 가두 모금을 전개해 1달러부터 많게는 1천 달러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컸다. 또한 성금의 100% 전달을 위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연합후원회의 성숙한 재정 집행의 노력 역시 돋보였다.

연합후원회 추진위원장 이병만 장로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남가주 교계를 비롯해 80여 일반 사회 단체들과 교민들이 하나가 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모금 운동을 통해 8만 1,550달러가 모금됐으며 강원도 이재민들에게는 1억 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병만 장로는 "한인사회 모두가



지난 13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해단식

고국을 사랑하고 이재민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성금에기에 100% 이재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교통비 및 운영비 등은 자비와 도네이션으로 사용했고,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심해서 기금을 쓰도록 노력했

다고 설명했다. 미주에서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연합후원회는 여름철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냉장고 110대와 긴급 생활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1천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또한 화재로 종탑과 예배당이 전소된 교회에는 400만원을 들여 종탑을 보수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연합후원회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속초시장과 고성군수를 대면한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부의 노력과 조치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연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전 4:9-12)라는 제

목으로 설교한 한기홍牧사는 "고성과 속초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동포 사회의 마음이 전달될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할 때, 이재민들이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미주 교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이어 "이번 모금 운동을 위해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게 돼 감사하고, 미주 교민 사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되어 모든 어려움도 협력해 이겨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인상 부 총영사는 본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모금 운동과 나눔은 동포사회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 쾌거"라고 평가했다. 황 부 총영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미주 교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동욱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한인 신학교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간다"



베데스다대학교 제42회 학위수여식이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됐다.

베데스다대학교 제42회 졸업식이 지난 16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돼 63명이 학위를 받았다.

베데스다대학교는 1976년 순복음중앙성경대학이란 이름으로 남가주 한인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이

제 42회 졸업식 총 63명 학위 받아

번 졸업자 가운데 무려 40여 명이 중국인, 흑인, 멕시코인 정도로 현재는 타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화 학교가 되어 '한인 신학교를 넘어 글로벌 대학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졸업식 설교는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이며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인 진유철 목사가 전했다. 진 목사는 졸업생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께 집중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학위수여식은 신학대학원장인 조지 위니 박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가 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김성혜 이사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김성혜 이사장은 졸업생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말, 행동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라"고 권면했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자축의 의미로 학위모를 공중으로 던지며

그동안의 학업 스트레스를 털어버렸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이 학교는 지금까지 1588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198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후 미주 한인신학교 가운데는 최초로 2001년 ABHE 인가를 받았다. 2006년에는 TRACS의 정회원자격을 획득했다.

남가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베데스다대학교는 목회학과 신학 뿐 아니라 경영학, 음악, 유아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2019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위 과정

- B.Th. (신학 학사) Korean Track / English Track
- M.Div. (교역학 석사)
- M.Div. with a concentration in Church Music (교회음악 중점 교역학 석사)
- MACCP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 MAICS (선교학 석사)
- Ph.D. in Contextual Studies (선교학 철학박사)

※ 학사와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원격교육으로 오프라인 과정과 동일하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

- 교수-학생 밀착형 ESL 과정
- 평신도대학

연관기관

- 산타페상담소 (소장: 김용환 박사)
- 기독교-이슬람 연구소 (소장: 김일권 박사)
- Glocal Leaders Institute (소장: 박에스터 박사)

본교 비전과 특징

- 전 세계 22개 노회, 480여 교회로 구성된 미주 최대한인교단
- 해외한인장로회(KPCA) 신학교
- 졸업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사역지(교회, 선교지) 연결망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일본 등)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학교
- 1-20 양식 발행: ESL, B.Th., M.Div., MACCP 과정
- 90% 이상 우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한 교수진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전 세계 18개국에서 수업)
- 12개 종류의 각종 장학금 지원
- 자격 요건을 갖춘 B.Th.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교육국의 무상 학자금 제공
-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군인들(Veterans)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의 혜택 제공

가을학기 등록 정회원 ats 정회원

오프라인: 8월 5일~8월 9일 / 온라인: 8월 12일~8월 16일

입학문의 및 상담 1-562-926-1023, Fax, 1-562-926-1025 <http://www.ptsa.edu/office@ptsa.edu>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총장 이상명 박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이사장 유영기 목사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습니다

6.25 한국전 참전용사들 초청해 감사 전한다

오는 23일 오후 5시 30분
은혜한인교회서 열려

남가주 한인 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는 오는 23일 오후 5시 30분, 풀러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6.25 한국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 기념행사를 갖는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와 은혜한인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LA와 OC, 사우스베이 지역 목사회와 교회협의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 6·25 한국전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미국과 한국의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매년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6.25 행사가 올해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O.C.기독교 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여성 목사회가 하나되어 공동으로 주최하게 돼 더 큰 의미가 있다.

김관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합과 연합의 정신으로 남가주와 오렌지카운티 목회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좋은 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며 “6.25의 실상을 알리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6.25 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기념행사를 소개하는 남가주 한인 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좌),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우)

남가주 한인 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는 “풀러튼 지역 YMCA에서 운동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참전 용사들을 연결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한인 사회 커뮤니티가 관심을 갖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행사를 통해 참전 용사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꼭 알고 싶었다”고 전했다.

공동준비위원장 샘 신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하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잊혀져 가는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전 참전용사

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보은행사로 열린다”고 밝혔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아 실무적으로 돕는 전임회장 샘 신 목사는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찾고, 육군 동지회 최만규 회장 등의 도움으로 한국군 참전 용사들을 초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에 이어 본 순서에서 특별 제작된 한국전 영상 상영과 더불어 구국 기도회, 탈북자 찬양, ‘북한에 보내는 편지’ 등의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은혜한인교회는 참전 용사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213)215-6029 샘 신 전임회장 (323)578-7933 강태광 총무

2019년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가져

2019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총장 김엘리아 박사) 제 3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5일, 마가교회(마음이 가난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최영호 목사, 조현숙, 박재민, 송혜민 전도사 등 4명이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특별히 조현숙 전도사는 84세로 고령의 나이임에도 모든 학업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 큰 박수를 받았다.



학위 받은 84세 조현숙 전도사

학위수여식은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 등 남가주 교계 단체장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 김인철 목사와 본교 박사원장인 고영준 박사가 졸업생들을 권면했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본교 신학대학장 송인 박사의 인도로 시작된 졸업예배는 남가주 목사회 직전회장 샘신 목사가 기도했으며, 남가주 여

자목사회 회장 주재임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아시아 담당총장 이준원 목사가 “기묘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졸업예배 축도는 남가주원로목사회회경회장 이태환 목사가 했으며, 남가주연목회장 남상국 목사가 기도했다.

한편 2015년 9월 설립된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는 SEVIS와 TRACS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지난 15일 열린 2019년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지난 2018 남가주 밀알 사랑의 캠프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오는 27일(목)-29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서부지단(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연합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캠프’를 개최한다. 올해 캠프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

시 아름다운 경치와 안전한 환경을 지닌 롱 비치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진행된다.

하와이를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남가주 밀알선교캠프
오는 27~29일, CSU에서

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Ohana in Christ”라는 주제로 성찬식과 세족식,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Ohana”는 하와이 현지어로 ‘Family’란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캠프를 준비하는 남가주 밀알은 “사랑의 캠프는 발달장애 청소년, 중

증 재가 장애인 및 시설 장애인들이 장애의 벽을 뛰어 넘어 말씀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소개하며 “장애인들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일반인들과 동등한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으로 귀하게 존중 받고 각자의 꿈과 소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기독교 단체로 장애인들과 함께 꿈과 소망, 믿음을 나누기 위해 1997년 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후원자들의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밀알선교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도, 봉사, 계몽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고, 그들이 장애인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영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며, 장애를 지니고도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일반인들에게도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하도록 선도, 계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6.25 한국전쟁

69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기념행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민족의 비극 6.25 한국전쟁 때 공산치하로 떨어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69주년 상기에배와 연합 기념행사를 갖고자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일시** : 6월 23일(주일) 오후 5:30분
- **장소** :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내용** : 예배, 참전용사 감사 행사, 식사

* 참전용사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찬 : 중앙일보, 한국일보, 코리아타운데일리, 기독교일보, 크리스천 비전, 크리스천 헤럴드,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크리스천신문, 기독교뉴스, 미주복음방송, 우리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CHTV, 3·1여성동지회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공동준비위원장 : 샘신 목사, 박세현 목사
문의 : 총무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복음의 일꾼 양성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할 것”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남가주 분교 개교 감사예배

남가주 교계 주축으로 이루어진 ‘강이달 남가주에 분교를 시작한 조지아센추럴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Georgia Central University 이하 GCU)는 지난 19일, 주님의교회(담임 김병학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남가주 분교의 시작을 알렸다.

GCU 신대원 남가주 분교는 온라인 수업 및 조지아 본교 캠퍼스 교육을 병행해 ATS 승인과정들 가운데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 석사(MACE) 선교학 석사(MAMS), 목회학 박사(D.Min) 코스를 제공하게 된다.

총장 김창환 박사는 “신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기에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육적, 선교적 사명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며 “양질의 과목을 개설해 남가주에서 신학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남가주 분교 개교 감사예배가 열렸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GCU 남가주 분교 학장 김병학 목사의 인도로 최갑종 목사가 “씨뿌리는 자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풍성한 결실은 씨를 뿌리는 작은 과

정부터 시작된다”며 “GCU 남가주 캠퍼스가 시작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오덕교 목사는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는 1638년 12명의 학생들과 2명의 강사로 시작했으나, 이후 수 많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다”며 “GCU 남가주 분교의 시작도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 많은 지도자들을 양

성하고 교육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이정현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GCU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종합대학(신학대, 경영대, 음악대, 컴퓨터공대)으로, 2017년에 ATS 정회원이 되고, 2019년 2월에는 한인이 세운 미국 내 신학교 최초로 문화인류학(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철학 박사 학위 인준을 받았다. 학교는 1993년에 교육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어 지난 27년간 미주 한인들의 신학 교육과 아프리카 등지의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에 집중해 왔다. 현재 본교 외에 뉴저지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남가주에는 지난 2016년에 주교육부 BPPE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문의) 남가주분교 디렉터 김병학 박사 213-392-0409 김동욱 기자

“힘들어도 괜찮아!” 마음 힐링 강연회 열린다



왼쪽부터 제인박 상담사, 샘리 상담사, 안현미 심리상담부 매니저

22일 한인가정상담소 LA 총영사관 공동 주최 오전 10시 LA 한국 교육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와 LA 총영사관 (총영사 김완 중)이 오는 22일(토) 오전 10시 LA 한국 교육원에서 한인들을 위한 ‘마음 힐링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 강연회는 최근 한인들의 급증하는 우울함과 절망감을 낮추기 위해 한인가정상담소와 LA 총영사관이 ‘힘들어도 괜찮아!(부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법)’라는 주제로 기획했다. 일상에 지친 한인들이 힐링 강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공감하며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강사: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매니저, LMFT) ▲주변에 힘들어 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강사: 한인가정상담소 박제인 상담사 AMFT, 샘 리 상담사 ASW)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우울함과 절망감을 벗어 던지는 법,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물론,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까지 아우르며 전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 김완중 총영사는 “한인들의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다”며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위로가 필요한 한인들이 편하게 와서 쉬고, 배우고, 평소 상담이나 정신건강에 궁금했던 점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한인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은 한국어로 무료 진행되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예약 해야 한다. 당일 간단한 스낵과 점심이 제공되며, 무료 주차 가능하다. ▲문의: 한인가정상담소 이미리 홍보담당 213-235-4848 LA 총영사관 정승범 실무관 213-480-5034 sbchung80@mofa.go.kr

“철학과 문학의 만남”

오는 6월 30일(주일) 오후 4시, 글로벌비전교회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회장 고영준)는 오는 30일(주일) 오후 4시, 글로벌비전교회에서 6월 월례회를 갖는다. 이달 모임에는 광주교육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강성률 장로가 “철학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이한나 시인의 시 “2월에 서서” 감상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함께 소설가 (한국 문인협회 정회원)로 등단한 바 있다. 강 장로의 다른 강성률 장로 책은 1996년 인문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2500년간의 고독과 자유』,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고 베트남 언어로 번역 출판된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년 청소년 우수도서’로 선정된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를 포함한 15권의 철학도서와 『달콩이』를 포함한 3권의 장편소설이 있다.



한편 강성률 장로는 1988년부터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광주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도 민주평화통일 중앙상임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상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풍향학술상(2회) 등을 수상하였고, 각종 문학상 수상과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회자 초청 설교 세미나

영혼을 살리는 설교!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시켜주는 설교!
여기 교회개척 18년동안 오로지 설교로 교회부흥에 전념하여 출석교인 500명을 이룬 한 설교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한다.)

교회부흥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설교에 관심있는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로텍스호텔 세미나룸 (Olympic + Gramercy Dr.) 3411 W, Olympic Bl, LA CA 90019
대상 :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회비 : 무료 (선물, 점심제공)

주관 :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후원 : 남가주목사회, 총신대학교남가주총동문회, 남가주여성목사회, 미주복음방송, BIZPOST그룹, 이음카페

강사 **채동선** 전도사 (마가교회 담임)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움직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아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16회>

“선교 후원을 위한 EM 청년들의 거라지 세일” 감상

몇 주 전 필자의 교회 EM 청년들이 선교후원을 위한 거라지 세일을 교회 앞길 잔디밭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했다. 선교 후원을 위한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잘하는 편이다. 도울 일 없는가 물었다니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물품들을 지원해 주십사 했다. 교회에 광고하여 교우들이 마음을 모았다. 이번에는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을 세웠다고 했다. 친구들은 다민족 청년들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거라지 세일에 나온 물건들이 다 사용하던 중고품인데도 사가는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다고 했다. 어떤 분은 청년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밝은 청년들의 모습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선교목적과 전도지도 준비하여서 복음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도 활용하자고 했다. 필자는 청년들의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서야 할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에 든든한 마음을 가졌다.

결산을 하니 수입이 480불 가량 되었다. 필자는 세 명이니까 한 사람당 150불씩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서로 대화를 길게 하며 고심도 하고 이곳 저곳 전화도 하였다. 그리고 결정을 하였다. 두 명에게는 200불씩 한명에게는 50불,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었다. 이유는 세 명을 후원하기로 정하고 후원 프로그램에 계획했는데 현재 상황이 두명은 아직 후원을 적게 받아 많이 부족하였고 다른 한 청년은 거의 다 후원받고 50불만 채우면 예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 보다 다른 두 청년에게 200불씩 후원하자는 제안을 했단다. 그것을 정하는 데 그토록 신중한 모습들이 필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일정도로 감동이었다. 모든 결산을 마치고 예비인도자가 마라나타를 선창했다. 같이 찬양하고 합심기도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리고 그날의 모임을 마쳤다.

어떤 손님은 무엇 때문에 청년들이 거라지 세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세 명의 친구들이 단기선교를 가는 데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했다. 그 손님은 기뻐하며 청년들의 귀한 사역에 응원하고 싶다고 하며 몇 가지 물품을 사가지고 갔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는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후원헌금을 하라고 하셔서 따로 헌금을 하고 가셨다 한다.

어떤 손님은 무엇 때문에 청년들이 거라지 세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세 명의 친구들이 단기선교를 가는 데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했다. 그 손님은 기뻐하며 청년들의 귀한 사역에 응원하고 싶다고 하며 몇 가지 물품을 사가지고 갔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는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후원헌금을 하라고 하셔서 따로 헌금을 하고 가셨다 한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나눔의 행복! 우간다의 슈바이처 유덕종 박사

우간다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유덕종 박사이야기입니다. 유박사는 경북의대를 졸업한 전도유망한 의사였습니다. 1991년에 창설된 한국국제 협력단(KOICA)봉사요원으로 1992년에 우간다로 건너간 유덕종 박사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서른셋 한창나이에 건너간 유덕종 선교사는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23년간 우간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우간다 국립 후송병원인 몰라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동아프리카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 받는 마케레레 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합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덕종 선교사도 간단히 봉사하고 돌아오리라 마음을 먹고 한국국제 협력단에 지원하여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군의관 제대를 하고, 세 살과 두 살의 딸과 셋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두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은 젊은 시절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간다 생활 8개월 만에 가족이 합류하여 나름대로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약 기간만 봉사하고 귀국하기로 맘을 먹습니다. 귀국 후의 생활도 준비하며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갈 꿈을 온 가족과 함께 꾸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귀국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을 준비하던 어느 날 큰딸이 뇌수막염을 앓게 됩니다. 변변한 의료 시설도, 약품도 없는 오지에서 딸이 죽어 갑니다. 아빠가 의사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딸이 숨도 쉬지 못하는데 의사인 아빠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마저 끊어진 방에서 촛불을 켜고 신음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던 유덕종 박사에게 “죽어가는 네 딸은 귀하게 여기면서 죽어가는 이 나라 사람들은 버리고 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유덕종 선교사는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20여 년의 아프리카 생활! 유덕종 선교사는 아프리카에도 한국에도 집 한 채가 없단다. 의사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집 한 채도 없지만 정작 본인은 “목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는 2002년부터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시간당 9000원짜리 의대 강사로 번 돈 마저 아프리카 병원건립에 쏟아 부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수

고를 아무도 몰라줍니다.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우간다 정부도 몰라줍니다. 우간다 정부로부터는 2000년에 받은 ‘내과 분야 최고 의사상’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프리카로 간다고 할 때, 또 아프리카에 남는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미친놈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덕종 교수는 우간다 의사들의 스승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이 되었던 그는 아프리카 의료 선교 활동을 결심하게 되었고 우간다 생활 도중에 유 사무엘로 개명하여 온전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유 사무엘(덕종) 선교사는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한 제자들이 부패한 사회와 문화를 변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하는 유 사무엘 선교사는 의술의 스승이 누리는 기쁨을 넘어 영적 스승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유 사무엘 선교사가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흥성사에서 발간한 ‘우간다에서 23년’입니다. 이 책에서 유 선교사는 일생 나눔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내가 그들을 치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통해 내가 치유 받았어요. 낮아짐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복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나눔이 성공입니다. 나눔이 진정한 자신의 삶입니다.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본지 주관 목회자 초청 설교 세미나 개최

본지가 주관하는 채동선 전도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오는 6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엘에이 로텍스호텔 세미나룸에서 진행됩니다.

채동선 전도사는, 18년전인 2001년 LA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하여 출석교인 수를 500명으로 성장시킨 목회자로, 복음의 본질과 핵심, 우리 영혼의 상황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교회 공간을 여러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며 교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 새로운 행보를 걸어왔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들 수 있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교회 부흥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설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

BIZPOST(비즈포스트그룹), 이음카페, 총신대학교 남가주동문회, 남가주 목사회, 남가주 여성목사회, 미주복음방송에서 후원하고 기독교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설교 세미나는 선물과 함께 간단한

점심을 제공하며 등록은 무료다. 목회자 세미나에 관한 모든 문의는 기독교일보로 하면 된다.



채동선 전도사

▲문의: 213.739.0403
엘에이 로텍스 호텔 주소: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구원의 보장

신명기 11: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신명기 11:1-12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이적기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모든 해방의 역사가 가능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사막에서 여러가지 초자연적인 이적기사로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을 더욱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고집하고 자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다 떨어져 멸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본문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목자의 심정에서 호소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까지는 오늘날 교회생활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바른 중생과 성장,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전제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의 보장과 기대가 확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봉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내가 절감하는 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갖가지 구원을 위한 은혜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의식하게 되면서 부터 우리는 철부지 신앙의 자리에서 철든 의리와 인격과 예절을 목적으로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철부지 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만 걸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결실과 소망을 위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생은 다 멸망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며 순종한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후 뒤따르

던 모든 애굽인들을 그 물로 덮어 멸하신 일은 구원의 대상과 멸망의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엄격하신 위력을 언제든지 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쉬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교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5-6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지만 징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시키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의 성과,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러차례 징계를 하셨으나 끝내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실 때 마지막 징계는 유기하심으로 나타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 신앙의 소망적인 발전을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엮여져가는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광야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서 따로 패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아백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13-14절에 "내가 우리를 찢고 끌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인가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찢고 끌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고 불평스런 이유를 대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을 찢고 끌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대열에 끼여 행보는 같이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했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주변에서 떠나라 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250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소멸하셨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거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앞장 세우신 모세와는 상관없이 지난 날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꿈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에 가나안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다가 갈수록 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며 고집한 결과뿐이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러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 하게 하신 이유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세의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신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려 백성들 중에서 제거하시므로 경고하시는 교훈의 본을 세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지

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찢고 끌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21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땅은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조건으로 보면 애굽은 참으로 살기 좋은 조건이고 가나안은 메마르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의 조건을 찢고 끌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나 이른 비(9-10월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3-4월에 내리는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타게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 언덕과 골짜기만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의 온전한 결실을 위하여 육신의 생계조건을 가지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조건을 좇아 살아가지 말고 항상 지켜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아래 하나님이 쫓겨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조건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보장으로만 사는 곳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Enrolling K-9 for Summer Program June 3 to July 26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ow Serving K-3 at New Campus!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기총

세기총,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통일은 거룩한 성령과 복음으로”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수석상임회장 윤보환 목사, 이하 세기총)가 지난 5월 10일 미국 뉴욕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제13차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에베소서 1:10)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세기총 임원진 및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미기총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가 내빈 소개를, 이종명 목사(준비위원장, 세기총 공동회장)가 환영사를, 최낙신 목사(세기총 대표회장)가 대회를 하고, 김명옥 목사(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이창종 목사(뉴욕교협 서기)가 성경봉독(예수골 37:15~23)을, 이광선 집사가 특송을 각각 맡았다.

설교는 ‘진정한 통일, 시온이즘’이라는 제목으로 세기총 수석상임회장 윤보환 목사가 전했다. 윤 감독은 “대한민국의 통일은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한국과 북한,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중재적인 사명을 위해 뉴욕교계가 앞장서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시온이즘은 평양교회 회복에 있다”며 “아

무래도 북한에 들어가기 쉬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무너진 평양에 잃어버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준비위원장 이종명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의 허브, 세계의 심장 뉴욕도성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의 합성이 태평양을 넘어 조국 한반도에 이르러 민족의 영원한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대회를 통해 “통일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행사와 주장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안다. 사람의 계획과 정치인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실 때 통일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세기총 2대 대표회장을 지낸 장석진 목사는 “우리들은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통일을 위해 발로 뛰고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묻고 “현재 세기총이 기도하며 세계를 반 바퀴 돌고 있는데 한 바퀴를 완주할 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뉴욕을 변화시킬 민족은 우리 민족 뿐



뉴욕시성시화총력전도 참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7월 27일 미주지역 30여 목회자 참여

미국인과 미국 내 다민족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2019년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가 오는 7월27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된다.

매년 뉴욕 지역에서 성시화 총력전도 진행되고 있는 미국재부흥운동본부(대표 김호성 목사)는 올해 총력전도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맨하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력전도에는 미동부(뉴욕)성시화운동본부와 국제도시선교회(ICM) 두 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김호성 목사는 “바울은 2천년 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그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인 로마로 가고자 했다”면서 “현대의 로마인 뉴욕은 400개 민족이 모여 187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대 도시로, 세계 경제, 정치, 언론, 문화 예술 등을 움직이는 세계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와 관련, “이곳 뉴욕을 변화시킬 민족은 세계 어딜 가든 교회부터 세우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우리 민족 밖에 없다”면서 “뉴욕으로 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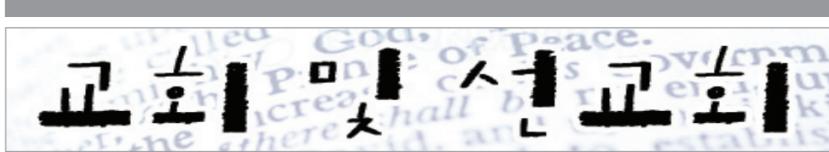
로 오고 있는 연간 5천만 여명에 달하는 지식적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한다”고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총력전도는 오전10시 맨하탄 그루터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진 이후 참가자들이 타임스퀘어 등 맨하탄 도심 곳곳으로 퍼져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총력전도에서는 수영로교회의 어린이 태권도 선교팀과 ICM 미주 가족 태권도 사범팀들의 태권도 퍼포먼스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펼쳐지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에서는 김재열 목사(센트럴교회)가 환영사 및 격려사를 전하며 한국에서 황덕영 목사(안양 새중앙교회)가 특별강사로 초빙됐다.

이밖에 강사 및 실행위원으로 미주에서 흥원기 목사(위싱턴 올네이션스교회 원로), 허연행 목사(프라이미스교회), 이성일 목사(아펜젤러내리연합감리교회), 박인갑 목사(뉴저지새방주교회), 양오섭 목사(토론토 기쁨총만민교회),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 이기성 목사(메디나감리교회), 이기용 목사(뉴욕성결교회), 고훈 목사(하은교회),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교회), 박마이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 등 3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삶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p> <p>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한시역 각 예배 15분 전</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육으로 이끄는 사랑의교회, 이만기장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 (67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미지리주 금요일)</p> <p>최순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p> <p>한현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p> <p>성인 EM예배 오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성인 EM예배 오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오후 11:00 6:00(토)</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p> <p>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지용덕 담임목사</p> <p>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화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후 11:00</p> <p>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열왕기상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p> <p>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예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금요일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p> <p>박운중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김종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더십예배(분당) (스페이스) 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더십예배(분당) (스페이스)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마음, 마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더노 오후 6:30</p> <p>GCEM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p> <p>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p> <p>김 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차부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청년부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p>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9799 F. (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례와 함께 할 때를 예비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7:30分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일예배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득났을 교회 변화받은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책 인용 한 마디 한 것 가지고 빨갱이라니...

“부목사 면직돼야 한다면 나도 목회 그만 둘 것”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캡처

이찬수 목사가 지난 16일 주일예배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최근 큰 논란이 된 정진영 부목사의 동성에 관련 설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정훈 교수를 비판, 또 한 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 목사는 논란의 당사자인 부목사에 대해 “끝끝내 그가 이것 때문에 면직돼야 한다면 그 날로 나는 목회를 그만 둔다”라고 했다. 이 목사는 “적과 아군은 구분해야 한다. 아무리 미워도, (해당 부목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품어야 할 형제”라며 “그 정도 설교해서 면직되면 앞으로 어느 부목사가 소신껏 설교하겠나. 어느 부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정도 부목사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목사가 무슨 담임목사 자격이 있겠나”라고도 덧붙였다.

이 목사는 또 이번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소위 ‘이념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목사는 “지난주 수요일 줌으로 기억한다. 느닷없이 교회로 항의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 ‘좌파 목사, 좌파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는 요지라고 하더라. 어리둥절 했다”고 했다.

이찬수 목사는 특히 이 교수가 자신의 설교에서 신영복 교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설교의 일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쓴 것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의 강한 반응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은 오히려 보수적인 목사라고 비판 받아 왔다면서 자신을 색깔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신영복 교수님, 그 분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 또 그분을 호도할 이유도 존경할 이유도 없다. 이런 책 제목을, ‘함께’의 정신으로 제목을 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제가 지금 ‘빨갱이’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이찬수 목사는 보수다, 꼰통 보수다’ 그런 소리에 시달렸다. 말만 하면 ‘꼰통 보수, 너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10년 내내 욕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정부가 딱 바뀌는 순간에, 제가

뭐가 달라졌나? 제가 빨갱이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공격하는 방식이 양쪽이 똑같은가. 지난 보수 정권 10년 내내 특하면 ‘왜 보수 신문을 인용하느냐’고, 특하면 ‘보수 진영의 누구를 인용하느냐’고. (그런데 지금도) 똑 같은 것 아닌가? ‘왜 신영복 교수 책 인용하느냐’ 그 얘기 아닌가”라고 했다.

이 목사는 “책 인용 한 마디 한 것 가지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는,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복음인가. 십자가인가?”라며 “(설교로 논란이 된) 젊은 (부)목사가 그렇게 초죽음이 되어 사과하고 사과하고 1년 동안 강단에 안 서겠다고 스스로가 자처하고... 저는 지금 그 목사가 우울증이 율가봐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정훈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목사가 설교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하고 정 부목사의 설교에 대해 여전히 복음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면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발언한 문제의 설교, △반기독교 동성에 옹호 뉴스앤조이와의 관계 △목사님과 분당우리교회의 역할함?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 목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목사는 분당우리교회 계시판을 통해 이 교수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은 뉴스앤조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진영 부목사 설교 사태와 관련, 자신을 ‘좌파 목사’, 분당우리교회를 ‘좌파교회’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에 대해 마음에 두려움이 컸고, 이로 인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와 저희교회의 부족한 점을 많이 자각했다”면서 “제 곁에는 이 교수처럼 ‘쓴 소리’ 하실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에,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억울하지 않다. 이 교수와 저는 같은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반드시 풀릴 것이라 믿고 있다”며 만남과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이 교수는 오는 7월 중순 미국 출장 후 돌아온 뒤 만남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합동 이승희 총회장 등 방북 봉수교회서 주일예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 설교

예장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과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단 일행은 북한 해외동포위원회 초청으로 ‘조국 산림을 푸르게’(대표 김호진)와 함께 방북했다. 북한 산림총국과 북한의 양묘장 현대와 추진 및 산림녹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고 한다. 또 방북단 일행은 4월 28일 봉수교회를 찾아 약 3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설교했으며 방북단 일행이 특별한 양을 했다”고 전했다.

방북단은 이외에 칠골교회와 원산 온천 양묘장, 마식령 스키장, 남포 서해갑문, 평양 대동강변, 을밀대, 개성 판문각, 고려 태조 왕건릉, 선죽교 등지를 돌아봤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기독교신문에 따르면 이번 방북에는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비롯해 서기 김중혁 목사, 회계 이대봉 장로, 총무 최우식 목사, 사무행정국장 노재경 목사, 총회통일준비위원장 이석원 목사, 황재원 목사, 오종영 목사, 기독교신문 주필 김관선 목사 등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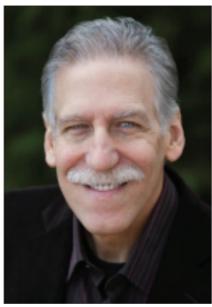


이승희 목사

김진영 기자

마이클 브라운 박사

“동성애 축제를 기념하지 않는 이유”



마이클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칼럼을 게재하며 우리가 동성애 집회(또는 성소수자 집회)를 기념해서는 안되는 이유 3가지를 소개했다.

박사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동성애 축제를 축하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내가 편협한 동성애혐오자, 트랜스젠더혐오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브라운 박사는 “먼저 나는 LGBT를 특별히 인식해야 할 가치나 고정된 범주로 수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G(게이), LG, LGB, LGBT, LGBTQ에서 LGBTQI, LGBTQIP 등에서 이들이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며 “B라는 문자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왜 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을 느끼는 누군가를 떠올려야 하는가? 왜 이들을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 또는 흑인 등의 범주와 같이 특별한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만약 그가 용기있는 소방관이려면 난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암 생존자라면 그를 축복할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이 존경이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난 기꺼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양성애를 기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두번째, 내가 만약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된다고 확신한다면, 왜 동성애를 기념해야 하는가? 내가 만약 개인적으로 어릴 때 성적 학대와 성폭행 등을 경험한 결과로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들을 알고 있다면, 왜 동성애적 이끌림을 기념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가 만약 한 아이에게는 두 명의 엄마, 두 명의 아빠가 아닌 반드시 한 명의 엄마와 한 명의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왜 아이들로부터 엄마나 아빠를 의도적으로 빼앗는 가정 형태를 축복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한부모 축제를 기념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부모에게 ‘당신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을 돕

기 위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내게 ‘스스로 트랜스젠더로 생각하는 이들 편에 서서 공감과 지지와 희망을 전해달라’고 한다면 ‘나도 끼워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미움과 학대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한다면 ‘나도 참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기념해달라’고 한다면, 난 정중하게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박사는 “세번째, 동성애 축제를 기념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사람으로 환영하거나 그들의 성과 업적을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신 보다 더 큰 문화적 아젠다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2011년에도 설명했지만, 이성애의 완벽한 일반적 대안으로서 동성애 합법화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모든 반대를 불법으로 만들라고 요구한다. 동성애는 한때 병리학적인 장애로 여겨졌으나, 지금부터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성애 혐오자로 간주될 것이며, 아마도 병리학적인 장애자로 고통을 받는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브라운 박사는 “LGBT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 축제는 모두 옷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도 다른 이들처럼 훌륭하고 재능있고 평범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이를 자랑스러워한다. 학대받던 시대는 끝났다. 바로 이것이 동성애 축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난 이러한 정서를 이해한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배려하는 문제라면 난 그들과 나란히 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성애 축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다. 기념해서는 안되는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 큰 아젠다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이유들로 난 동성애 축제를 기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연대에서 나를 편협한 혐오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것들이 날 슬프게 하지만 나의 확신을 바꾸진 않는다”고 말하며 “6월은 내게 또 다른 달로 남아있을 뿐, 동성애 축제를 기념하는 달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뉴욕대학교에서 근동아시아 언어학을 연구한 브라운 박사는 지금까지 25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이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강혜진 기자

美 펜스 부통령

“각국 대사관엔 성조기 하나만 걸어야”

국무부, 최근 일부 대사관 ‘무지개 깃발’ 요청 불허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국 미 대사관에 성조기만 걸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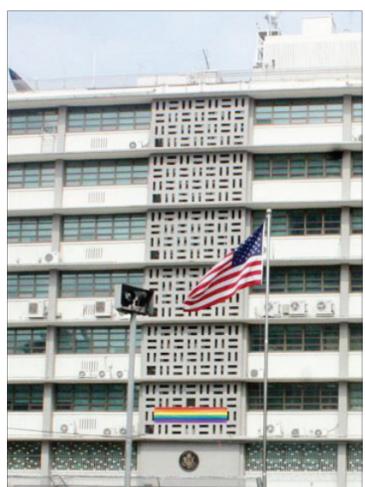
펜스 부통령은 최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에 한 가지 깃발만을 걸어야 하고, 이것은 성조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 미 대사관이나 워싱턴D.C에 공식적으로 계양되는 깃발에 관해서는 성조기 하나만 띄우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브라질, 독일, 이스라엘, 라트비아 대사관이 ‘성소수자들의 달’인 6월을 맞아 무지개 깃발을 걸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존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한 것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미국 성조기 아래에 무지개 깃발을 걸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부터는 무지개 깃발 계양을 두고



주한 미국대사관에 걸렸던 성조기와 무지개 깃발의 모습.

본부 승인을 받으라는 공문이 각 대사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대사관의 요청이 모두 수용됐으나 올해는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WP는 그러나 일부 대사관에서 이를 거부하고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도 건물에 무지개 깃발을 게시했다가 지난 9일 철거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W.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부 오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없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담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내서 오영애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동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과목)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음주의로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운 복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찬양부, 유주동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찬양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신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상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새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최초 한글 신약성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서 발견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했던 존 로스의 <예수성경전서>



최초 한글 신약 합본 성서인 <예수성경전서>. ©BBC 코리아 캡처

1887년 발간된 최초의 한글 합본 신약성서 <예수성경전서>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됐다고 영국 BBC 코리아가 보도했다.

이 성서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942-1915)가 1887년 3월 발행했다. 존 로스 선교사는 1870년대 중반 평안도 출신 청년들을 고용해 한글 번역을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평안도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주도하면서, 번역본 곳곳에 북한 평안도 사투리가 남아있는 것이 흥미롭다. BBC 코리아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해 해당 번역본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존 로스의 이 번역본에는 '오맘·오마니(어머니)', '디키면(지키면)', '정딴케(정직케)', '공경티(공경하지)', '나야오디(나아가지)', '맛당티(합당하지)', '세상을 이갓티(세상을 이같이)' 등 평안도식 표현이 들어있다.

존 로스와 그에게 한글을 가르친 이승찬은 1882년 누가복음 낱권 성서 번역을 시작으로 한국어 신약성서 합본을 출간했다. 그러나 평안도 사투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쉽지 않았고,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은 1890년 서울에서 수정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존 로스는 기독교 서적 외에도 한국어 문법과 역사책을 남겼다. 1877년 한국어 문법 및 단어집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을 출간했는데, 이는 영어로 기록된 최초의 어학 교재로 선교사들을 위

해 만들어졌다. 로스는 이 문법책을 통해 띄어쓰기와 가로쓰기를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BBC 코리아는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북부의 닉(Nigg)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태어난 곳의 지방어인 게일어(Gaelic Language)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했다"며 "이런 배경은 이후 로스가 만주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한다"고 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는 존 로스의 최초 한글 성서 외에도 한·중·일 초대 성경본이 모두 보관돼 있는 등, 세계 각국의 희귀 성서가 보관돼 있다고 한다.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는 2천여 개 언어로 해석된 희귀 성서 및 문헌 4만 4천여 권이 보관돼 있다. 성서 담당 사서인 오네시머스 느군드 씨는 인터뷰에서 "2천여 개의 언어 중엔 이제는 사라진 언어가 대다수"라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성경 겉표지 역시 희귀 소장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소중하고 있는 초대 한국어 성경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첫 한글 신약 성서 중 누가복음서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로스의 한국어 초대 성경은 사전 예약 후 열람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성경 공부하러 13시간 기차 타는 중국 기독교인 훈련 위해 모인 22명 중 18명은 구금 경험

중국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성경을 암송하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감된 중국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작은 종이 조각으로 은밀하게 반입되는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자신이 중국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떠났던 중국 선교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후난성의 22명의 기독교인들은 한 호텔에서 열린 리더십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무려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으며, 이들 중 18명은 이미 신앙 때문에 옥살이까지 했던 이들이었다. 당시 이 목사는 "우리가 잡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라고 물었고, 그들은 "목사님은 24시간 내로 추방되고, 저희는 3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져온 성경이 부족해 7명은 성경이 없이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내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읽겠다고 말하자,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자신의 성경을 건네주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왜 그 여성이 자신의 성경을 건네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성경 전권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공부를 마친 후, 휴식시간에 그녀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더군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교도소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요'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녀는 "교도관들이 기독교 관련 자료들은 압수하지만, 교도관 몰래 종이에 써진 성경을 반입해 숨겨둔다. 종이마저 발견해서 압수하는 상황이 오기 전 최대한



중국 허난성의 한 교회. ©한국 순교자의 소리

빨리 암송해야 한다"면서 "마음에 숨겨진 것은 압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목사는 "훈련을 마친 중국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도 언젠가 목사님처럼, 미국의 기독교인들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기 위해 1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차로 1시간만 걸려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나무 바다에 3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0분 이상만 앉아 있어야 해도 되지 않는다. 또 폭신한 의자와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한 가정 당 평균 2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읽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거의 갖고 있지 않지만, 종이 조각을 갖고도 암송한다. 난 여러분이 우리처럼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과 같아지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답해주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용한 천연식물입니다.
-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체에 함유한 줄기에서 얻.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ABA는 미량염화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가 함유되어 없습니다.
- ※ 만성질환,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 대마씨 Hemp Seeds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250 + tax



조규민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펠티컬처 제품 개발자

-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ine)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한교연 권태진 목사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 국회, 한기총, 기독교계 향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에 이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도 13일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역점 시행하는 정책과 방향이 미래보다는 과거에 머무르고, 이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야기되는 모습을 보며 실망과 탄식을 넘어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정책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큰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바른 역사관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올바른 정책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는 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그런데 석 달이 넘도록 국민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서로를 비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여야 정치권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한교연이 11일 충남 보령시의 한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제8-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도 이 자리에서 가결됐다. ©한교연

특히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을 향해 "오랜 세월 보수를 대변해 온 전통 있는 기독교연합기관의 대표로서, 또한 성직자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시한을 정해 무조건 하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복음의 정신에 부합한지, 또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의 정치적이고 편향적 돌출 행동이 자칫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요구하시는 선자적 사명에 대한 심대한 왜곡으로 세상에 비쳐짐으로써 교회의 세상을 향한 복음사역 전반에 큰 결핍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자각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한기총 대표회장의 시국 선언문 발표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조차 심한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기독교연합기관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죄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암 투병' 김동호 목사 유튜브 방송 시작



김동호 목사

김동호 목사가 유튜브 방송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했다. 김 목사는 또 "평생 목회자로 살았다. 그 중에서 새벽기도의 은혜가 특별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이름을 붙힐 만큼 그 은혜가 내게 컸다. 그게 내 신앙, 목회, 삶의 토대, 영양분, 기둥이 되었다"면서 "그 은혜가 암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임한다면, 암투병 중인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게 되었다"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의 이름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붙인 이유와 유튜브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목사는 "암에 걸리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실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울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대개 겪는다"면서 "하루 종일 암에 총만해서 끔찍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숨을 트이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살리는 기운인 하나님의 숨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숨으로 인간은 생명이 됐다. 암 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기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것을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평생 목회자로 살았다. 그 중에서 새벽기도의 은혜가 특별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이름을 붙힐 만큼 그 은혜가 내게 컸다. 그게 내 신앙, 목회, 삶의 토대, 영양분, 기둥이 되었다"면서 "그 은혜가 암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임한다면, 암투병 중인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게 되었다"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의 이름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붙인 이유와 유튜브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어 "혼자 셀프 카메라처럼 찍어서 매일 올릴 것"이라면서 "하다가 좀 틀리고, 실수하고, 여기 저기서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잡소리가 들어와도 그러려니 해도 계속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목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성경의 한 책을 선택해 하루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만 붙잡고 전할 것이라고 진행 방식도 소개했다. 노승현 기자

기독교 원로들, 한기총 '시국선언문'에 "크게 염려"

호소문 발표... "교회 정치집단화 해선 안 돼"



기독교 원로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박종화·민영진·전병금 목사, 박경주 주교, 신경하·김명혁 목사, 손봉호 박사, 김재열 신부, 윤경로 장로 ©김진영 기자

기독교 원로들이 1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시국선언문'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크게 염려하고, 크게 통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새 일도, 의미 있거나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니"라며 "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이 일을 매일 크게 취급하고 있어서, 마치 그와 그의 주장이 기독교회의 신앙이며 대표적인 행태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해 가야 한다"며 "다만 교회를 정치집단화 하거나 정치정당화 하는 일은 불가하다"

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화신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가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라며 "정치집단화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회의 타락이고 존재 근거인 복음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기구를 정치화 내지 정치집단화의 발판으로 삼는 전광훈 목사의 행태는 교회의 신앙적 공공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현실 정치인이 되려거나 정치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세속정치의 욕망을 밝히고, 본인의 목사직도 내려놓고, 교회 연합기구를 탈퇴하고서, 한 개인으로서 소신대로 정치행위를 하

기 바란다"며 "자신의 '욕망'에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이번 한기총 시국선언문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영주 목사(전 NCKK 총무)는 "한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발언은 용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회 연합기구의 이름으로, 그것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양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가 정치에 발언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걸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한기총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라며 "대표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 공공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개인이 하는 거야 상관없다"고 했다.

손봉호 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목사가 성직자의 자격으로 파당 정치에 관여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정부가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평화에 엄청난 파괴적인 정책을 편다든가, 인종 차별을 심하게 할 땐 발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故 이희호 여사 장례예배 "영원한 하늘의 복 누리시길"

고인이 생전 장로로 섬겼던 창천교회서 드려

지난 10일 별세한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예배가 발인 후인 14일 오전 7시, 고인이 생전 장로로 있던 서울 창천교회(담임 구자경 목사)에서 드려졌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이희호 여사는 1963년부터 창천교회에 출석했다.

담임 구자경 목사의 집례로 시작한 예배는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의 추도사, 황용배 장로(창천교회)의 기도, 박준화 목사(창천교회 원로)의 설교, 이낙연 국무총리·신낙균 전 문광부 장관의 조사, 표용은 감독(전 기감 감독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는 추도사를 통해 "97년의 삶을 한결같이 이끌어 주신 생명의 주님께 이희호 여사가 하늘로 향하는 환송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며 "긴 세월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오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끄셨

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며 "신앙이 그 분의 유일무이한 재산이었고, 기도가 그 분의 유일무이한 무기였다. 여사님의 삶이 마침내 영원히 거하실 여호와와의 집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천국의 면류관'(딤후 4:7-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준화 목사는 "이희호 장로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신 기독교 신앙인이셨다. 저는 1966년 부임해 53년 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이희호 장로님과 함께 창천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다.

박 목사는 "이 장로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기신 말씀은, 이루지 못하고 가신 나라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하늘에서도 기도하시겠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 집 과 정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학석사

한교연 “대통령 참석 여부 국가조찬기도회 정신 아니나...”



제 5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입장’을 1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17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예배와 기도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독교 패상’이니 ‘물 먹이기’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대통령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조찬기도회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교연은 “국가지도자를 위한 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탄핵 등 불가피한 중대사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전례가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과 대

통령의 휴가 등이 불참 이유로 거론되는 자세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는 국가조찬기도회의 역사와 전통,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순수한 기도회의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며, 한국교회는 국가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는 기독교의 위세를 세상에 과시하거나 정치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재미있는 IT 칼럼>

유튜브를 이용하여 내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내기



재미있는 IT 윤승준 대표

우리 미국에도 유튜브를 통해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알리고 또 그동안 본인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는 아주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100살에 가까운 어른까지 유튜브를 통한 방송은 지금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너무도 다양하여 긍정적인 면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생방송이나 혹은 내가 만든 동영상을 올려, 많은 이들과 공감하는 기본 기능 말고도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찍은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려 하니 일정 크기가 넘어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때 동영상을 직접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유튜브에 올리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것 아니야? 이걸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부분이라 남들에게는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만 보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공개/비공개/미등록 등의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잘 모르십니다. 공개로 하면 모든 사람이 검색을 통해 볼 수 있고 비공개는 문자 그대로 비공개로 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내 동영상을 안전한 곳에 올려놓고 혼자만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미등록을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등록을 선택하면 이 동영상은 주소로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소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URL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 주소이지요. 따라서 친척들에게 동영상을 직접 파일로 보내주려는 노력 대신에 이 동영상을 미등록으로 유튜브

에 올리고 유튜브 주소를 알려 주면 친척 모두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실 줄 모르다고요? 아주 쉬운 일이니 따라 하세요.

먼저 유튜브에 계정을 만드세요. 유튜브 계정은 구글 계정을 가진 모든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즉 Gmail을 가지고 있다면 유튜브 계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자신의 얼굴이나 이니셜이 나와 있다면 계정에 로그인된 것입니다.

그 왼쪽으로 방송용 카메라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누르면 녹화,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오고 아래에 내가 찍은 동영상들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올릴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입력합니다.

바로 아래 공개, 영어로는 Public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눌러 미등록 Unlisted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면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동영상을 동작시키면 아래 부분에 공유 Share가 나옵니다. 그것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바로 친구들에게 공유할 나에 보내놓아 그 주소를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쉽지요? 이 기능은 친구들 간에도 널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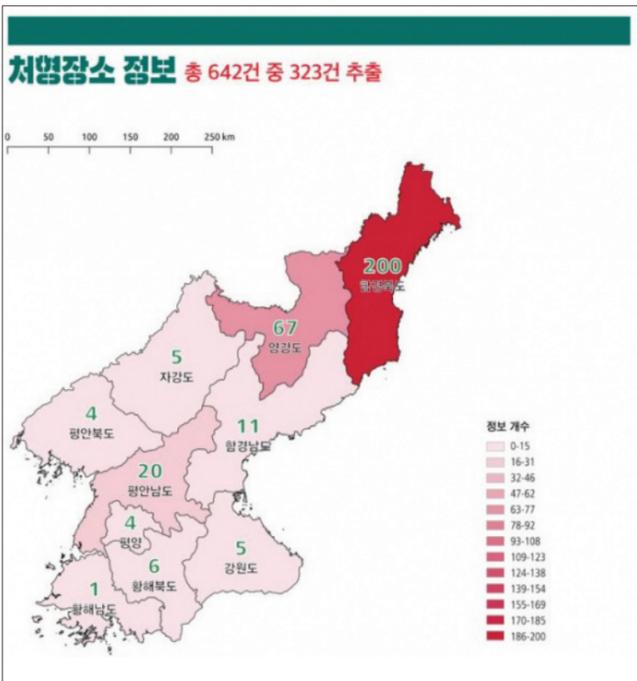
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동영상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많은 저장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스마트폰! 문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
909-971-7720
<https://www.youtube.com/재미있는it>
목회자들에게는 스마트폰 기본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북한 공개 처형 장소만 무려 323곳 ‘위치’ 추적 공개

TJWG,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관련 보고서 발표



개처형 장소들 중 한 번에 10명 이상의 공개처형에 관한 정보는 19건이었다. 공개처형은 강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벌어진 경향을 보였다.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술이 있었는데, 수백 명 정도가 가장 많았고, 상당수 참여자는 천 명 이상 규모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해서는 25곳을 확보했다. 2구 이상의 시체를 함께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한 경우는 7곳이었다.

처형 사례에서 북한 당국이 적용한 죄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죄였고, 다음으로 동(구리) 훔친 죄, 인신매매죄, 소훔친 죄, 지방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절도, 비법적 거래 등 경제적 이유였다. 사형 적용 죄목들을 통합 재분류하면, 절도 및 재산 침해죄가 가장 많고, 폭력죄, 정치적 죄, 인신매매죄, 기타 경제적 죄로 나타났다.

TJWG 측은 “그러나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북한 당국이 처형 이유로 든 죄목들을 실제 피고자 저지른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처형하고 암매장한 북한 내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이하 TJWG)은 11일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TJWG는 지난 4년여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해 구축한 데이터를 토대로, 323곳을 처형이 이뤄진 장소로 지목했다. 공개처형 장소 323건 중 318건은 정보 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인한 곳들이다. 267건(83%)이 함경북도(200건)와 양강도(67건)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ATS 주최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주최권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석사,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8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청교도 정신은 실천, 성경 지식 뿐 아닌 삶으로 드러나야”

조지아센추럴대학교 ‘청교도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 주제로 공개 세미나 개최



오덕교 박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센추럴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Georgia Central University 이하 GCU)가 6월에 남가주 분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17일 오덕교 박사(합동신대원 총장 역임, GCU 석좌교수)가 강사로 나서 ‘청교도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진행했다.

오덕교 박사는 성경과 삶, 교리와 실천을 완벽히 결합해 살았던 청교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과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오덕교 박사는 성경을 삶으로 살아냈던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소개하고, 오늘날 목회자 성경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교육과 목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교도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은 성경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아침예배와 저녁예배는 매

일 행해졌고 주일 오전예배와 저녁예배, 목요모임 참석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예배가 사라지고

안됩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 모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청교도들이나 우리 나라도 불과 십 수년 전까지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림에도 교회를 중시 삼았고 신앙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2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역시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죄는 예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따라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설교자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

“오늘의 목회 환경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많은 목회 현장의 리더들이 ‘옛날과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상황이 말씀 보다 위에 서서는

삶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청교도 부흥을 이끈 목회자들의 설교 핵심은 무엇이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교였습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 초점은 영혼 구원과 회심을 유발하는데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성경중심적이었고 삶 속의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 문단이 총 38문단인데 19문단이 ‘이렇게 살자’라는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설교가 폭발적인 부흥운동의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예배를 모두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날 주일 설교를 리뷰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독교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며, 가정교육의 지향점은 선량한 시민이나 문화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가변적이고 잠깐 보이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상의 성공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여기며 영혼 구원에 맞춰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세상의 변혁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역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해외 이민교회 설교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해외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성경강해를 참 잘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이나 역사적인 고증들, 신학자들의 본문 해석 등으로 성도들의 성경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지성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감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기서 말씀을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 로까지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만 호소하는 메시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해 교훈을 찾아내고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예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이 드러나도록 중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개혁자라는 구호는 많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나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메시지만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인다면 존경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음의 물결, 부흥의 운동이 확산 될 것입니다.”

김동욱 기자



좌부터 조지아센추럴대학교 석좌교수 오덕교 박사, 김창환 총장, 신학대학원 학장 황진기 박사, 남가주 분교 디렉터 김병학 박사

기독일보 7월 일일관광

기차여행

출발: 7월 13일(토) **\$99** 성지 입장료, 및 모든 팁은 불포함

포 * 대형 버스, 일식 뷔페, 합 * 기차 요금, 패리 요금.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라호야 바다 여행

호텔 델 코로나도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렉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향만 관광 후 [패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Tel.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 대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 접수마감** 2019년 7월 15일(월) 접수시 \$500 디파짓
-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 회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번호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 1회 > 7월 30일까지 \$500, 2회 > 8월 30일까지 \$500, 3회 > 출발 7일전 \$1,000
-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행	상세 일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돔, 주기도문 교회, 벳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다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레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쿨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툼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스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회,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혼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라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돌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